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공훈국가합창단에서 새로 창작형상한 남성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찬가》,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조선의 진군가》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세가 일떠서고 부강조국건설의 활로가 펼쳐지고있음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당이 바라고 인민이 좋아하는것이라면 열백밤을 패서라도 해내고 세계를 앞질러 끊임없이 새것을 개척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별고 싶었습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운명의 손길》,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와 같은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선군혁명령도의 날과 날들에 언제나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하늘로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신뢰심을 승엄하고 은은한 선율에 담은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대부대가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의 진리를 새겨 주는 공연은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최절정을 이루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주시며 사회주의강성번영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천만리길을 역세게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일련단심을 격조높이 노래한 공연은 종곡 《어머니생일》로 끝났다.

3 면으로 계속

